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은 자신의 삶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은 태어날 때 이미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은 본래 훌륭하게 태어나고 비겁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태생적 조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무책임과 무능함을 변명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삶의 주체를 스스로가 아니고, 외부의 힘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사르트르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있다.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필연적 조건이다. 이 조건은 절대적이어서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되지 않는다. 즉, 삶의 본질은 선택하는 자유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사는 삶, 그것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삶, 그것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삶, 그것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삶, 그것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삶, 그것뿐이다.

‘대단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 역시 살아온 삶과 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태도로 자신을 말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삶을 보여 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나 드문 일이다. 자신의 삶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일은 이제 큰 행운이다. 모두가 왜소해지는 시대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삶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약순환에 누구나 몸과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지체가 된다. 하지만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삶은 삶을 잉태하지 못한다.

소란스러운 말의 힘과 허세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삶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외설스러워지며 농담거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던져 주는 싸구려 웃음거리와 천연덕스러운 사랑발림에 취해간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기한 채 앞과 뒤가 뒤바뀐 방식에 길들여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주입된 무력감과 무책임한 냉소에 기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체념할수록 행복해진다든 위선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의 생기를 제거해버린 삶 속에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언어가 사라지고 소음만 남는다.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새로워지는 삶이 되면당하면 이를 표현하는 언어도 쓰인새를 잃는 것이다. 요즘 매일 듣는 고통스러운 소음들이 언어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언어는 삶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삶을 나누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삶을 핑계로 난장을 반복하는 세상을 두고 나체는 경청되지 않은 언어는 “시장터의 동전소리로 지혜의 소리를 잠재울 것이다!”라고 말한다.

늘 ‘뒷걸’을 자정하며 오직 삶으로 자신을 말하며 삶은 선택임을 보여주고 때란 한 가수의 이름을 기억한다. 소음이 아닌 삶의 노래를 남긴 그의 노래가 어디서나 그의 삶을 이야기할 것이다. 시장터에서는 삶의 지혜를 덮는 동전 소리가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진여고 교사

강독을 걷다

중장터 앞으로 흐르는 청강, 용강은 비나리에서 돌로 된 보(湫), 돌꽃강으로 변신한다. 보는 나루인 배를 댈 수 있는 곳, 몸피를 키운 강은 남평 우진에서 구름개 달개 꽃개라는 이름도 마을도 희미해져 가는 도안의 포구를 끌어안고 다시 오들강이 되고 그것도 아주 잠깐 가난한 아가씨의 슬픈 전설이 서린 드물강인 지석강이 된다. 강을 따라가며 수많은 사람과 마을, 전설과 이야기를 만난다. 마을마다 각기 고유의 이야기를 품고 있듯 이 강 또한 그러할진대 이런 강을 천(川)으로 예측화하거나 모두 영산강으로 통칭하기엔 너무도 아쉽다.

산이 뺏겨간 남자라면 강은 사근사근한 여자고, 산이 단단한 뼈라면 강은 유연한 핏줄 같다. 이런 개성 있는 강처럼 그 강을 닮은 사람들 역시 각기 지역 색을 띠고 산다. 그러나 강마다 고유의 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강들도 영산강이 아닌 비로소 생명력 있는 고유의 강이 되고, 각기 존재의 강이 되고, 지역의 특성이 되지 않을까.

강독을 걷는다. 건너편을 바라본다. 우리 인간도 잘나에 섬진강이 되기도 하고 영산강이 되기도 한 존재처럼 호남정맥 사이로 떨어지는 빛물 같은 운명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건너편은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경의 장소였다. 제주도의 육신을 보고 싶어 한 세례레와 하늘 마자를 풀고 싶어 한 파에톤처럼...

희망의 강이자 절망의 강은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자극하며 흐른다.

다. 그래서 강을 걷는다는 것은 생사를 걷는 길이고, 삶을 읽는다는 의미가 된다.

아버지의 상여도 마을 앞, 강을 건넜다. 난 삼도천을 건너는 아버지의 꽃상여를 보면서 기뻐도 가라앉는 카론의 강을 늘 떠올린다. 죽음보다 더 삶을 빛내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강을 걸을 때마다 난 방전된 내 삶에 에너지를 뺏겨가게 충전한다.

해질 무렵 강에서 뛰노는 물고기들처럼 힘차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도 그 생명들의 모친, 위에서 언제나 아래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슬기롭게 돌아갈 줄 아는 지혜, 작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어떤 형태도 고집하지 않고 담길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화순의 꽃길 강길, 꽃강을 걷는다. 꽃이 많아서 꽃강 길이라 짓는다. 아름다워서 꽃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꽃강을 걷는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내게 말을 건네 오기도 하는 강, 때론 꽃잎을 싣고 흐르기도 하고 내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는 강. 화순의 다양한 빛깔의 강을 바라보면서 정녕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돌아본다. 저 강물처럼 흘러온 인생, 맑게 또는 붉게 흐르기도 했고 때론 혼탁하게 흐르기도 했을 것이다. 흑여 그도 저도 아니게 흘러왔다면 이제부터는 조용조용 낮게 흘렀으면 좋겠다. 남은 생은 화순하게 흐르고 싶다.

화순을 흐르는 화순 강에서 화순한 삶을 배운다.

社說

전남권 의대 공모 시작...이제 되돌릴 수 없다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테크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나주·목포·순천에서 제1차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민공청회는 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절차로 용역기관은 향후 여론조사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늦어도 11월 초까지 전남도에 평가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민공청회에선 국립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과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 등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추천 대학을 결정하기 위한 공모가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할 것이다.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도 위원장에 대한 출신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선임하는 등 전남지역과 해당 학교 출신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용역기관은 한 개 대학만 참여할 경우 한 차례 공모 연장을 한 뒤 추가 접수가 없더라도 적합 여부를 따져 전남도에 보고하기로 해 공모는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공모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온 순천대와 순천시가 용역기관의 인터뷰 요청에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전남도의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순천대는 일단 공모에 참여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한다. 전남권 국립 의대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한 곳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선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호천사 ‘이주민 쉼터’ 더 많아지길

갈 곳 없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이주민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문을 연 ‘이주민수호천사 911쉼터’ 얘기다.

아시아인권문화재단이 운영하는 911 쉼터에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이주민 모녀와 갑자기 하고 당해 갈 곳을 잃은 40대 캄보디아 여성 등이 등지를 틀고 있다. 최대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개소 전부터 입소하겠다는 이주민들이 몰려와 벌써 1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911 쉼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의식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 상담은 물론 구직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등 취업 정보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베트남 출신의 20대 남성은 제주도에서 임금체불로 고생하다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광주에 왔다가 주거 제공은 물론 재단축이 고용노동부의 구직 프로그램을 연결해준 큰 도움을 받았다.

재단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접수된 이주민들의 상담 건수가 2019년 520건에서 2023년 1969건으로 4년 만에 380%나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이주민들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겪는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8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나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한 전남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촌이나 공장이 멈출 정도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이 지역민들과 어울려 진정한 광주전남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폭력과 부당하게 하고 당하는 이주민들이 아직도 많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찾아온 이들이 우리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심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이주민 쉼터 같은 민간차원의 지원단체가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

無等鼓

한여름 이맘때 자주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매미 울음소리다. 매미와 베짦이가 여름이면 그악스럽게 예전과 달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요즘에는 방충망에 달라 붙어 고음을 뿜어내는 매미를 보기도 한다. 한적한 시골길이나 도심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매미 울음은 성하의 계절에 느낄 수 있는 낭만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여름철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곤충을 꼽으라면 베짦이를 빼놓을 수 없다. 땀방이 내리쬐는 한여름 개미는 땀을 빨벌 흘리며 식량을 모으는 반면, 베짦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나 부르며 허송세월을 보낸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식량이 떨어진 베짦이는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개미를 찾아가다. 베짦이가 이처럼 ‘개미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게 된 데는 동화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곤충의 능력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나은 경우도 훨씬 많다. 생존하기 위해 먹고, 천적에 맞서기 위해 방어를 하고, 짝짓기를 위해 선물을 한다. 곤충학자인 정부희 우리곤충연구소 소장은 ‘곤충은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그와 같은 습성을 지닌 곤충을 ‘인성미’로 부르며, ‘인성미’는 ‘인성(인성) + 미(미) = 인성미’라고 풀이한다.

인성미는 ‘인성(인성) + 미(미) = 인성미’라고 풀이한다. 인성미는 ‘인성(인성) + 미(미) = 인성미’라고 풀이한다. 인성미는 ‘인성(인성) + 미(미) = 인성미’라고 풀이한다.

기고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고 가꾸자



김충남
동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우리나라에 이르는 동북아시아 대부분 지역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원산지와는 별개로 전국시대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는 “근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는 구절이 있으며 최치원은 당나라에 보내는 국서에서 신라를 가리켜 ‘근화향(槿花鄉)’이라고 칭하기도 한만큼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무궁화와 인연을 맺어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궁화는 문과나 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왕이 내리는 ‘어사화(御賜花)’ 장식용으로 쓰였으며 훈례 때 입는 옷에도 풍요와 다산, 번치않음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수놓았다. 또 대한민국 수립 직후인 1949년 행정·입법·사법 3부의 휘장을 모두 무궁화로 도안했으며 태극기의 기봉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은 ‘무궁화 대훈장’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불렸을까. 1896년 독립된 정초시 때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 국화로 자리매김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무궁화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 많은 수난을 당했다. 독립지사들이 나라꽃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일제는 무궁화를 아예 뽑아버리고 불태웠다. 또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고 달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긴다는 이유를 붙여 ‘피꽃’, ‘부스럼꽃’으로 부르면서 무궁화를 멀리하도록 했다. 생명력이 강한 무궁화가 저항 의지를 상징하기에 철저히 배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선각자들이 독립정신과 민족 열의 상징으로 무궁화를 사용하며 정부 수립이후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내 여러 자생식물 중에서 국화(國花)로 이보다 의미 깊은 꽃은 찾기 힘들 것이다.

무궁화는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의 품종이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만 130여 종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한민국 국가 상징으로 사용되는 무궁화는 꽃잎이 5장인 홑꽃 계통 중에서도 흰색 또는 연분홍색 바탕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백 단심계 또는 홍 단심계 무궁화이며, 특정 품종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무궁화가 잘 자라고 많은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조건은 비옥한 토양 및 햇빛과 양분이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므로 반드시 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정원이나 공원에서 심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무궁화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100일간 새로운 꽃을 피운다.

진땀물이 많은 꽃이라는 이유로 정원에 심기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진땀물과 꽃이 필 때 잎나방을 막을 수 있도록 저독성 살충제를 2-3회 살포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무궁화는 종자로 심으면 품종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품종을 심고자 한다면 접목한 나무나 삽목을 해 양성된 묘목을 심어야 한다.

8월 15일은 79주년 광복절이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킨 민족의 상징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심고 잘 가꾸자.

여름은 나라꽃 무궁화(無窮花)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이다. 무궁화꽃이 대한민국 나라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무궁화를 흔히 볼 수 없게 되었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심고 가꾸는 것은 어려운 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궁화는 가꾸기 어려운 나무가 아니며 병충해에 취약하지도 않다. 오히려 꽃이 별로 없는 여름철에 오랫동안 화려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북반구 온대지역 국가에서 즐겨 심는 관상수이기도 하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관상수나 정원수로 널리 심고 있어서 국내에서보다 무궁화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광주에서도 2019년 시 청사 앞 500여 평에 5개 종 100여 주를 심어 무궁화동산을 조성했고 운전하고 가다보면 일부 도로에 가로수로 가꾸고 있어 무궁화를 볼 수 있다.

무궁화는 높이 3-6m까지 자라는 쌍떡잎 아욱과 낙엽관목이다. 원산지는 인도 북부에서 중국 서남부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제작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